

進化機構로서 굳혀졌고 隔離, 變異機構, 기타 進化의 證據가 될 수 있는 生命現象이나 地史學的 論議는 별로 없었으며 이러한 생각만으로 社會進化의 方向으로 곧바로 끌고 갔었던 것 같다. 嚴復의 「天演論」만 하더라도 학슬리의 「進化和倫理」를 번역한 것이다.

다윈주의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光華學校(1906년 설립)의 頌祝歌에도 『優勝劣敗 固然하니』의 대목이 있고, 「西友學會月報」, 創刊號(1906. 7. 31)에는 西友學會趣旨書(光武十年十月 日)가 실려 있는데 그 첫머리에도 『凡物이 孤하면 危하고 羣하면 強하며 合하면 成하고 離하면 敗함은 固然之理라 矧今世界에 生存競爭은 天演이오 優勝劣敗는 公例라 謂하는 故로...』라고 했으며, 同月報 論說 “教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에서도 朴殷植이 『...曰生存競爭은 天演之理오 優勝劣敗는 公例之事라 하니...』를 비롯하며 文脈이 進化思想에 기반을 둔 듯하다.

「進進彙論」은 일종의 社會史라 할 수 있지만 본문 첫머리부터 進化사상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人類何以貴 以其能革新進化也 生物由微生之蟲 衍而爲人 其中不知幾經天之淘汰 物類之淘汰 始政良革新 而爲直背顛方趾之人屯其可貴也』라고. 한편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일자 論說 “信教自強”에서도 첫머리에 『普天之下全球地上에 億萬人生이 互相競爭者는 勢力而已라 是以로 國土와 人民이 恒常 弱肉強食과 優勝劣敗를 不免하니...』라고 써어 있다.

이러한 例는 더욱 많다. 進化和 進步의 觀念을 결부한 글로서 「大韓每日申報」 1908. 2. 8자 論說 “進化和 降衰”, 同 新聞 1909. 8. 1자 論說 “競爭進化論의 大概” 등이 있으며, 「大韓自強會月報」 5號(1908. 11. 25)에 실린 張志淵의 論說 “團體然後民族可保”, 「太極學報」 10號에 실린 朴庠銘의 “教育이 不明이면 生存을 不得” 등의 글에도 進化思想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舊韓末의 進化論은 生存競爭, 自然淘汰, 適者生存이 主軸을 이루고 있었고 진정한 다윈주의는 理解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의 進化論 受容의 特色은 開化 知識人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

했으며, 약간의 動物進化의 논의는 있었으나 植物進化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生物學的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生物進化의 概念의 受容과 吸收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社會進化로의 영접을 받았었지만 進化과정을 連繫的・直線的인 발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더욱 生物進化에 대한 다윈의 생각은 이를 消化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第25回 全國歷史學大會

科學史部會

1982. 5. 29

新羅梵鐘의 幾何學的 形狀

서울대 廉永夏

1.

1—1. 우리나라 靑銅文化 中에서 世界的인 傑作品을 꼽는다면 梵鐘을 第一 먼저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梵鐘이 形態・構造面에서 (1) 獨特한 創意性을 지니고 있고, (2) 鐘소리가 清雅하고 은은하며 긴 餘韻을 갖고, (3) 또한 鐘 表面에는 아름다운 紋樣을 갖고 있어, 文化潮流 研究에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여 주는 優秀한 藝術品이기 때문이다.

本研究에서는 앞으로 더욱 優秀한 鐘을 設計하고 發展시킬 수 있는 資料를 作成하기 위하여 韓國梵鐘의 母體가 되는 新羅梵鐘의 構成要素를 中心으로 한 幾何學的 形狀에 대한 實測值를 基準으로 하여 數值的인 解析을 하고 이에 對한 考察을 하였다.

1—2. 新羅時代에 佛教가 國教로 되어 있었고 禮佛行事에는 梵鐘이 使用되었으므로 많은 鐘이 製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國內에 現存하는 新羅鐘을 살펴 보면 (1) 國內 最古인 上院寺鐘(725), (2) 國內最大인 奉德寺鐘(俗稱 에밀레鐘, 771),

(3) 淸州出土新羅鐘(公州博物館 保存 無銘) 등의 3口에 不過하다. 이 밖에 破壞된 鐘으로는 江原道 襄陽郡에서 出土되었다가 6.25動亂에 破壞된 禪林寺鐘(現 國立中央博物館에 保管, 804)과 1967年 南原 實相寺에서 發見된 鐘上部가 缺損된 實相寺鐘(現 東國大學校博物館 保存, 製作年代 9世紀 推定)이 있다. 또한 日本에 있는 新羅鐘 중에서 現存하는 (1) 靑州 蓮池寺鐘[日本 福井縣 敦賀市(833)]. (2) 松山村大寺鐘[日本 大分縣 宇佐幡官(904)]. (3) 雲樹寺鐘[日本 島根縣 安來市 雲樹寺 傳來(無銘)]. (4) 光明寺鐘[日本 島根縣 大原郡 賀茂町 光明寺 傳來(無銘)] 등 四口와 이외에 亡失鐘 2口天盡寺鐘 [對馬島(745)]와 窮興寺鐘[對馬島(856)]가 記錄에 남아 있다. 표 1은 우리나라 梵鐘의 時代別 數量의 一部이다.

本 研究에서는 國內에 있는 新羅鐘의 幾何學의 形狀에 대하여 說明키로 한다.

표 1. 우리나라 梵鐘의 時代別 數量

No.	製作時代別	國內	國外	備考	計
1	新羅時代	3	6	其他 4	13
2	高麗時代	94	53		147
3	朝鮮時代	122	2		124
4	其他未詳	40	—		40

1978年 金禧庚 報告

合計 324

2.

韓國鐘의 基本型을 살펴 보면 江原道 五臺山 上院寺에 現存하는 國內 最古인 上院寺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上院寺鐘의 鐘蓋上에 陰刻된 銘文으로 新羅 聖德王 24年(唐의 開元 23年, 725)에 鑄成되었고 이 鐘이 韓國鐘의 모든 要素를 具備하고 있다. 韓國鐘과 中國鐘 및 日本鐘과의 特徵의 相異點을 比較하면 韓國鐘은

- (1) 龍鈕는 單龍으로 構成되어 있다. (中國鐘 및 日本鐘은 雙龍)
- (2) 鐘頂에는 中國鐘, 日本鐘에서 볼 수 없는 1個의 圓筒으로 된 “甬”을 갖고 있다.
- (3) 鐘體의 上帶에 隣接하여 4個의 乳廓이 있고 各 乳廓에는 3×3個의 9乳가 있다.
- (4) 鐘體의 上下에는 아름다운 紋樣을 갖는 上帶, 下帶가 있고

- (5) 鐘體에는 아름다운 撞座와 飛天像이 配置되어 있다.

韓國梵鐘의 形態는 우리나라 固有의 獨創의인 것으로 東洋, 西洋을 通하여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다.

鐘의 起原…(1) 梵鐘의 印度起源說

(2) 中國鐘의 起原…中國古銅器「鍾」說

(3) 韓國鐘의 起原…甬鐘起源說

(4) 萬波息笛의 由來와 甬의 關係說

3.

機械工學에서 圓筒體, 보일러, 壓力容器 등의 設計에는 口徑을 基準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 鐘에서 幾何學의 形狀을 設計할 때에 鐘口徑을 基準으로 하였는가 또는 鐘高를 基準으로 하였는가 明白히 알 수 없으나, 여기서는 新羅鐘의 치수를 檢討하면서 數式化하려고 한다.

그림 1은 鐘의 幾何學의 形狀에 대한 共通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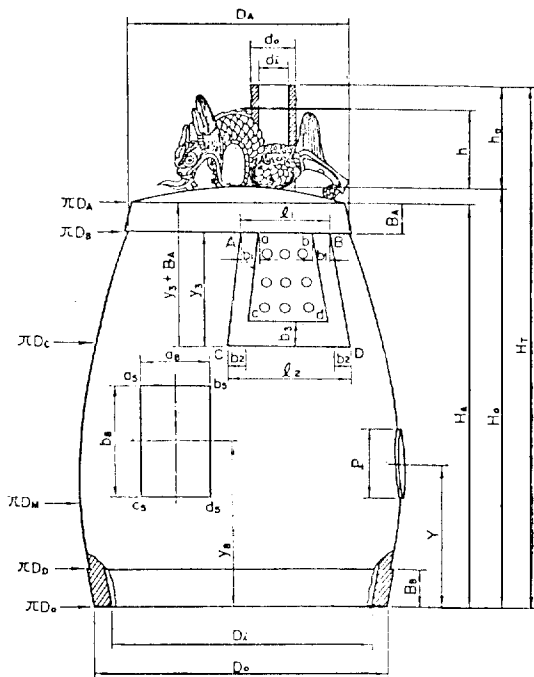


그림 1. 鐘의 各部記號

표 2. 우리나라 現存 新羅鐘의 諸元(但, 高麗時代의 龍珠寺鐘은 比較用 資料)

區 分		新 羅 鐘			高麗鐘(前期)	高麗鐘(後期)
		上院寺鐘	奉德寺鐘	公州 新羅鐘	龍珠寺鐘	來蘇寺鐘
口 徑	外 徑 (D_0)	903	2227	476	866	668
鐘 高	鐘 肩 高 (H_A)	1285	2863	602	1092	770
	鐘 身 高 (H_0)	1336	3002	640	1162	821
	全 體 高 (H_T)	1670	3575	780	1450	1053
龍 頭 高	音 管 高 (H_0)	335	648	80—90(切損)	290	232
	龍 鈕 高 (h)	300	390	140	267	190
두 개	鐘 口 두 개 (t)	48—50	203	24	66 (65—68)	57
	最 大 두 개 ($t_{\max}$)	52—54	—	—	70	—
撞 座	中 心 높 이 (Y)	460	890	155	290	242
	直 徑 (P)	222	530	115	170	135
	個 數 (N)	2	2	2	4	4
上·下帶의幅	上 帶 幅 (B_A)	91	275	32	85	60
	下 帶 幅 (B_B)	117	303	54	110	77
乳廊(區圈)	上 部 길 이 (l_1)	360	939	196	290	188
	下 部 길 이 (l_2)	450	1100	215	295	220
	乳 廊 높 이 (y_3)	357	722	172	240	203
鐘 肩 徑	鐘 肩 直 徑 (D_A)	636	1503	324	580	445

註：(1) 奉德寺鐘의 치수는 洪思俊의 測定値를 引用한 것이고, 其他는 筆者가 實測한 치수이다.

(2) 鐘의 配列順은 年代別로 하였다.

記號를 表示한다. 그리고 표 2는 新羅鐘의 實測値를 나타낸다. 但, 表中の 高麗鐘 치수는 新羅鐘과 比較하기 위한 것이다.

[1] 鐘身高(H)

前述의 「天工開物」에 例示된 치수는 다음 略式으로 表示할 수 있다.

D : 鐘下部의 口徑(mm) H : 鐘身高(mm)로 表示할 때 鐘身高(H)는 口徑을 正四角形으로 한 때의 對角線의 길이와 같다고 推定할 수 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定理에 따라 $2D^2 = H^2$ 이므로 $H = \sqrt{2}D \approx 1.414D \dots\dots\dots(1)$

한편 新羅 및 高麗鐘의 口徑에 대한 鐘肩高比 및 鐘身高比는 표 3과 같다.

표 3. 新羅鐘의 鐘身高 肩高의 口徑에 대한 比

區 分	上院寺鐘	에밀레鐘	公州新羅鐘	龍珠寺鐘	來蘇寺鐘
鐘肩高比(H_A/D_0)	1.42	1.28	1.28	1.26	1.15
鐘身高比(H_0/D_0)	1.47	1.38	1.36	1.34	1.23

표 3과 같이 725年 鑄成된 上院寺鐘이 第一 크고, 그 後 時代가 내려옴에 따라 鐘身高比는 減少되었음을 볼 수 있다. 公州 新羅鐘의 경우 鐘身高比는 에밀레鐘과 大略 同一하고 高麗時代鐘에서는 前期인 龍珠寺鐘이 後期의 來蘇寺鐘보다 크다.

[2] 龍鈕高와 音管高

一般으로 우리나라 鐘에서는 龍鈕中の 가장 높은 音管의 높이를 表示하고, 音管이 없는 中國鐘 및 日本鐘 等에서는 縣架部の 높이인 龍鈕高를 表示한다.

龍鈕高(h)는 「天工開物」에서 口徑(D_0) 8尺인 때 2尺 7寸으로서

$$\frac{h}{D_0} = 0.3375 \approx \frac{1}{3}$$
$$h = \frac{1}{3}D_0 \dots\dots\dots(2A)$$

또는

$$h = \frac{1}{\sqrt{2}} \times \frac{1}{3}H \approx 0.2357H \dots\dots\dots(2B)$$

표 4. 龍鈕高 및 音管高의 口徑에 대한 比

區 分	上院 寺鐘	에밀레 鐘	公州 新羅鐘	龍珠 寺鐘	來蘇 寺鐘
龍鈕高比 (h/D_0)	0.33	0.175	0.30	0.30	0.28
音管高 (h_0/D_0)	0.37	0.30	0.19 (破損)	0.33	0.35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龍鈕高比는 上院寺鐘에서는 h/D_0 의 값이 「天工開物」의 α 식과 一致한 $1/3$ 이고 奉德寺鐘에서는 大端히 작은 값을 보였다. 公州 新羅鐘의 경우 표 4에서 龍鈕高比가 0.30으로서 上院寺鐘보다 작고 에밀레鐘은 音管高比 0.30과 동일한 $h_0=0.3D_0$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音管比는 上院寺鐘이 가장 크고, 에밀레鐘이 가장 작으나 그 範圍는 다음과 같다.

$$h_0=(0.3-0.37)D_0 \dots\dots\dots (3)$$

[3] 鐘口徑 두께

口徑두께라고 하는 것은 鐘의 最下部의 두께를 말한다. 우리나라 鐘 中에는 上院寺의 鐘과 같이 “혀”가 없는 것과 奉德寺의 鐘과 같이 “혀”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혀”가 있는 것은 “혀”의 크기가 두께에 해당한다.

鐘의 두께는 鐘소리 및 鐘의 壽命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撞座 높이와 相關性을 갖고 있다.

표 5는 표 2에 表示한 鐘의 두께 比이다.

표 5. 鐘口徑 두께에 對한 口徑의 比

區 分	上院 寺鐘	에밀레 鐘	公州 新羅鐘	龍珠 寺鐘	來蘇 寺鐘
口徑두께比 (t/D_0)	0.055	0.090	0.051	0.076	0.085

위의 表로부터 우리나라 鐘의 口徑部 두께는 다음과 같다.

$$t=(0.05-0.09)D_0 \dots\dots\dots (4)$$



그림 2. 鐘下部 두께의 傾向

우리나라 鐘의 두께의 變遷을 보면 一般으로 時代가 내려오면서 혀의 길이가 길어지는 傾向을 갖고 있다(그림 2 참조). 이것은 時代降下와 더불어 鐘口徑部에 鐘唇을 붙인 데 起因된 것으로 보인다.

[4] 鐘, 上帶 및 下帶幅의 比

鐘口徑에 대한 鐘口 두께比, 上帶幅比 및 下帶幅比는 표 6과 같다.

표 6. 上帶幅比 및 下帶幅比의 關係

區 分	上院 寺鐘	에밀레 鐘	公州 新羅鐘	龍珠 寺鐘	來蘇 寺鐘
上帶幅比 (B_A/D_0)	0.10	0.123	0.07	0.10	0.09
下帶幅比 (B_B/D_0)	0.36	0.136	0.115	0.13	0.112

한편, 上帶幅比에서는 上院寺鐘 및 龍珠寺鐘이 口徑直徑의 10%인 데 比하여 에밀레鐘은 12%, 公州 新羅鐘은 7% 등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下帶幅比의 경우는 上院寺鐘 및 龍珠寺鐘이 中間值인 13%이며, 全體의으로 다음 범위에 있다.

$$B_B=(11.5-13.6) D_0(\%) \dots\dots\dots (5)$$

[5] 乳廓帶 및 그 幅

乳廓은 上帶에 隣接하여 四個所에 있다. 그리고 上部는 狹小하고, 下部는 擴張된 四角形으로 되어 있다.

표 7은 乳廓의 上部길이(l_1), 下部길이(l_2), 및 높이(y_3)의 口徑比를 表示한다.

표 7. 乳廓 構成길이의 關係

區 分	上院 寺鐘	에밀레 鐘	公州 新羅鐘	龍珠 寺鐘	來蘇 寺鐘
上部길이比 (L_1/D_0)	0.4	0.42	0.41	0.30	0.28
下部길이比 (L_2/D_0)	0.5	0.50	0.45	0.34	0.32
乳廓높이比 (y_3/D_0)	0.4	0.324	0.36	0.27	0.30

표 7에서 上院寺鐘은 乳廓構成比가 一定한 比率를 갖고 있다. 즉

$$l_1:l_2:y_3=4:5:4 \text{ (上院寺鐘)}$$

그러나 다른 鐘에서는 近似하나 差異를 보이고 있다. 한편 奉德寺鐘의 경우에는 口徑內側直徑 d_i 와의 乳廓帶比를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l_1:l_2:y_3=5:6:4 \text{ (奉德寺鐘의 內徑比)}$$

한편 乳廓帶幅 b 의 값은 新羅鐘에서는 大略 다

음 관제를 볼 수 있다.

$$b_1 = 0.2l_1 \dots\dots\dots (6)$$

표 8. 乳廓帶의 幅比

區 分	上院 寺鐘	에밀레 鐘	公州 新羅鐘	龍珠 寺鐘	來蘇 寺鐘
乳廓帶幅比 (b/l_1)	0.2 隆起雷 形	0.2 丹孤平 形	0.19 隆起雷 形	0.165 隆起雷 形	0.144 隆起雷 形
乳頭形狀					

그러나 高麗時代의 乳廓幅과 比較하면 漸次로 減少하는 傾向에 있다. 표 8은 乳廓帶幅比를 表示한다.

[6] 撞座의 높이, 撞座의 直徑 및 數

撞座높이는 鐘소리 및 鐘壽命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撞座높이를 y , 撞座直徑을 P 라고 하면 표 9와 같이 口徑比는 上院寺鐘, 奉德寺鐘, 公州 新羅鐘 等 年代順으로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撞座直徑도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

표 9. 撞座 높이 및 撞座直徑比

區 分	上院 寺鐘	에밀레 鐘	公州 新羅鐘	龍珠 寺鐘	來蘇 寺鐘
撞座높이比 (Y/D_0)	1/2	1/2.5	1/3	1/3	1/3
撞座直徑比 (P/D_0)	0.25	0.24	0.24	0.2	0.25

$$y = \left(\frac{1}{2} - \frac{1}{3}\right) D_0 \dots\dots\dots (7)$$

$$P = (0.25 - 0.2) D_0 \dots\dots\dots (8)$$

한편 撞座의 數는 新羅時代에는 2個, 高麗時代에는 2 또는 4個, 그리고 朝鮮時代에는 2個, 4個 및 無撞座 等이 있고, 8.15 以後에는 다시 撞座 2個로 復歸하고 있다.

[7] 肩高徑과 口徑比

肩高徑의 대한 口徑比를 표 10에서 보면 上院寺鐘의 肩高徑比가 가장 크고, 公州 新羅鐘, 에밀레鐘順으로 약간 감소되고 있다.

표 10. 鐘肩直徑에 對한 口徑比

區 分	上院 寺鐘	에밀레 鐘	公州 新羅鐘	龍珠 寺鐘	來蘇 寺鐘
肩高直徑比 (D_A/D_0)	0.70	0.67	0.68	0.67	0.66

그리고 肩高徑의 값은 표 10에서 다음 範圍에 있다.

$$D_A = (0.66 - 0.70) D_0 \dots\dots\dots (9)$$

[8] 飛天像의 位置

표 11은 우리나라 新羅鐘의 飛天像의 位置 占有길이를 表示한다.

표 11. 飛天像의 配置比

項 目	上院寺鐘	에밀레鐘	公州新羅鐘
幅과 높이比 $a:b$	$a:b=3:4$	$a:b=3:5$	$a:b=1:2, 3$
幅 長 이 a	$a=0.4D_0$	$a=0.35D_0$	$a=0.16D_0$
飛 天 像	奏樂雙飛天	供養單飛	奏樂單飛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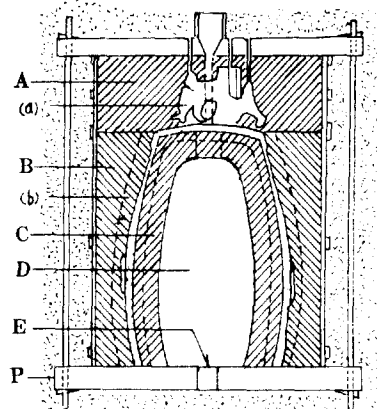
飛天像이 占有한 幅과 높이인 $a:b$ 및 a/D_0 의 比가 公州新羅鐘이 가장 작고 飛天像의 相對치수도 작다. 또한 飛天像의 中心位置의 口徑에 對한 比는 上院寺鐘 및 에밀레鐘에서는 0.33~0.36인 데 比하여 公州 新羅鐘에서는 0.66으로 약 2倍의 높이 比率을 갖고 있다. 이것은 公州新羅鐘에서는 飛天像 位置를 中·下型의 境界線을 避하여 鑄型에 만들었기 때문에 높은 位置를 占有하게 된 것으로 推定된다.

新羅時代에는 上院寺鐘, 奉德寺鐘 等과 같이 飛天像이 配置되었으나 高麗時代에는 三尊佛과 飛天이 함께 配置되었는가 佛像이 配置된 鐘이 出現하였고, 朝鮮時代에는 佛, 보살이 鐘體에 配置되어 變遷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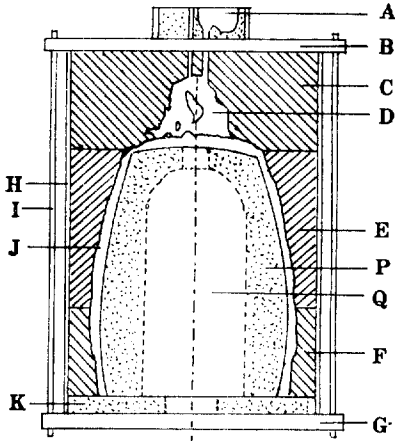
[9] 新羅鐘의 鑄型

그림 3A는 新羅鐘의 鑄型을 推定하여 만든 것이다. 上院寺鐘에서는 鑄體를 單一鑄型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통틀주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림 3의 (B) 公州 新羅鐘에서는 鐘體를 2個의 鑄型을 使用하여 만들었고, 그리고,



(A) 上院寺鐘



(B) 公州 新羅鐘

그림 3. 韓國鐘의鑄型推定(鐘은 新羅時代)

(A) 및 (B)에서 上部龍頭는 WAX型으로 型을 만들었기 때문에 上部鑄型은 上下 2個로, 公州新羅鐘은 3個의 組로 鑄型으로 構成되었다. 그리고 慶州博物館에 따로 만들고, 鐘體를 鑄造할 때 一體로 또는 組立鑄型 鑄성한 例도 볼 수 있다.

4.

韓國鐘의 設計에 必要한 幾何學의 形狀을 新羅鐘의 實測值를 解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text{ 鐘肩高 } H_A = (1.28 - 1.42) D_0$$

$$\text{ 鐘身高 } H_0 = (1.36 - 1.48) D_0$$

$$(2) \text{ 音管高 } h_0 = (0.3 - 0.37) D_0$$

$$(3) \text{ 鐘口두께 } t = (0.05 - 0.09) D_0$$

현존하는 國內 最大의 奉德寺鐘의 鑄型은 公州鐘과 같이 3個鑄型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鐘體에 上下鑄型의 이음매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쉽게 찾아낼 수 있다.

上帶, 下帶 및 撞座 등은 地紋板을 使用하여 紋樣을 찍은 것이 大部分을 占有하고 있고, 작은 鐘에서는 鐘全體를 WAX process로 만든 것이 있다. 그리고 高麗·朝鮮時代의 一部 鐘들은 龍頭를

$$(4) \text{ 上下帶幅 } B_A = 0.1 D_0 \text{ 및 } B_B = (1.15 - 1.36) D_0$$

$$(5) \text{ 乳廓帶길이 } l_1 : l_2 : y_3 = (0.4 : 0.5 : 0.4)$$

$$D_0 (\text{上院寺鐘形})$$

$$l_1 l_2 y_3 = (0.42 : 0.5 : 3.2) \quad D_0 (\text{에밀레鐘形})$$

$$\text{乳廓帶幅 } b = 0.2 l_1$$

$$(6) \text{ 撞座中心높이 } Y = \left(\frac{1}{3} - \frac{1}{2} \right) D_1$$

$$\text{撞座直徑 } P = (0.2 - 0.025) D_0$$

$$(7) \text{ 肩高徑 } D_A = (0.66 - 0.7) D_0$$

$$(8) \text{ 飛天像幅과 높이 } a : b = 3 : 4 \text{ 및 } a = 0.4 D_0$$

$$(\text{上院寺鐘形})$$

$$a : b = 3 : 5 \text{ 및 } a = 0.35 D_0 (\text{에밀레鐘形})$$

$$(9) \text{ 鐘體의 鑄形은 上院寺鐘에서는 通틀式}$$

그리고 에밀레鐘 및 公州新羅鐘에서는 2個의 組立으로 構成하였다.

위와 같은 資料를 使用하면 鐘의 基本構成要素를 設計할 수 있다.

韓國 獸醫學 創始者로서의

桓雄天王과 惠慈法師

高麗大 姜 晃 熙

韓半島에서 家畜을 기른 역사는 考古學의 으로 金海貝塚에 근거를 둔 金石併用器時代, 그리고 文獻的으로는 三國志 東夷傳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대체로 B.C. 300 - 400 이전부터라고 추측된다. 韓國의 畜産과 獸醫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農業과 畜産, 그리고 畜産과 獸醫의 關係를 먼저 설명해 두고자 한다.

現代에 있어서 畜産의 定義는 「農業의 一部門을 형성하고 그 生産물을 사람의 厚生에 이용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통념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의 東洋 또는 韓國에 있어서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서 農業과 畜産은 서로 독립적인 關係에 있었다. 한편, 畜産과 獸醫와의 關係는 반대로 현재의 分立的인 關係보다 오히려 表裏一體의 觀念이 강했다.

즉 周禮 天官에 의하면 萬民을 九職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첫째가 農業이고, 네째가 畜産이라 하여 (太宰之職 以九職任萬民 一曰三農……四曰 藪牧食畜鳥獸) 鳥獸을 기르는 일이 耕種農業과